

特輯

유전스와 精油産業

유전스政策과 精油産業

雙龍精油 業務部 業務 1 課

최 근 一連의 보도에 정유업계가 대단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原油, 原木, 原綿 등에 적용하고 있는 延支給輸入(유전스 輸入) 기간을 금년 하반기부터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킬 방침이라는 사실이 外換政策当局의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短期外債감축 및 不要不急한 수입억제의 政策意志와 함께 보도되었기 때문이며, 정유업계가 유전스기간 단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난 몇년동안 原油價 인상, 국내수요의 침체에 따른 경영난 속에 83년 두차례에 걸친 유전스기간 단축조치로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고 있어서 더 이상의 부담은 堪耐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국내정유업계의 原油導入유전스 사용현황을 중심으로 정부의 유전스정책이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유업계의 입장을 살펴 보고자 한다.

I. 유전스制度和 原油導入유전스

1. 유전스制度

유전스란 국내수입업자가 국내外国換銀行의 支給保證을 바탕으로 외국수출업자로부터 신용을 供與받아 물품을 수입하고 일정기간 후에 輸入代金과 信用供與기간의 이자를 決濟하는 일종의 국제금융을 말한다. 이러한 유전스는 信用供與者에 따라 수출업자가 직접 公여하는 Shipper's Usance와 외국금융기관이 供與하는 Banker's Usance로 구분된다.

그러나 유전스수입은 수입대금 決濟猶予에 따른 자금부담경감효과가 있는 반면, 短期外債의 발생으로 一國의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바 적절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原油導入유전스란 原油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原油를 선적하는 날부터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로 産油國이 제공하는 外上기간(Shipper's Usance)과 외국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신용기간(Banker's Usance)으로 구성된다. 현재 國際原油市場에서의 Shipper's Usance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예외적으로 60일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때는 추가 30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관례이다. Banker's Usance 기간은 83년의 단축조치로 120일이며, 따라서 原油

導入유전스 총사용기간은 통상 150일에서 최장 180일에 이르고 있다.

2. 石油導入유전스의 使用背景

原油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거래물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인데 반하여, 정유사가 원유를 선적한 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원유수송기간, 재고보유기간, 외상판매기간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국내정유사의 경우 1회 轉기간은 대략 100일에서 120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유도입시 유전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100餘日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는 하루 原油量을 50萬배럴로 가정할 경우 하루 110億원의 결제자금이 필요하며, 판매대금 회수시까지의 무려 1兆 1千億원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운전자금을 자기자금, 또는 국내여신으로 충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클 뿐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84년 상반기 국내정유사의 유전스 평균잔액은 1조 9천억원 정도이며 이는 상반기 국내 총신용平均殘(末殘기준) 4조 3천억원의 44%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유도입유전스를 국내금융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유전스 금액만큼의 신용공급이 늘어나거나 他部門의 여신이 줄어들어야 하는 바이는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에 一大 變혁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정유사는 기업활동이 계속되는 한 막대한 이자비용, 換差負擔 등을 감수하면서 유전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原油導入유전스 使用現況

이와 같은 원유도입유전스를 국내 정유사는 과연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금융비용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과거 몇년간의 추세를 통하여 살펴 보자.

2次 石油波動이후 원유가격의 인상과 재고의 증가에 따른 운영자금의 소요액 증가로 81년도에는 유전스평균잔액이 25億달러에 달하였으며, 유전스평균사용일은 160일에 이르렀다. 그러나 83년 원

유가격의 하락과 국내정유사의 低價원유확보 노력으로 유전스평균잔액은 20億달러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精油社 平均 유전스 사용현황)

	79	80	81	82	83
平均使用日(日)	93	158	161	135	133
平均殘額(億달러)	11	23	25	21	20

국내정유사는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유전스금융을 전부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이자율(B/A 레이트 또는 LIBOR 레이트)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국내정유사의 연도별 유전스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年度別 유전스 利子費用)

	79	80	81	82	83
유전스利子(億원)	164	1,029	2,300	1,272	1,281
國際金利水準(%)	11.48	12.48	15.33	10.7	10.67

또한 유전스는 外貨表示債務이기 때문에 원유도입시와 결제시의 환율이 서로 다를 경우 換差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 1월 變動換率制를 채택한 이후 계속적으로 환율이 상승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유사는 아래와 같이 엄청난 유전스換差損을 부담하고 있다.

(年度別 유전스 換差損 發生現況)

	79	80	81	82	83
年末換率(w/\$)	485	662.3	702.7	750.7	797.5
換差損(億원)	-	2,905	1,200	1,008	936

II. 현행 유전스政策이 精油社에 미치는 영향

1. 현행 유전스政策

우리 나라의 延支給輸入制度는 75년 延支給輸入運用要領을 제정·시행하면서부터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76년 6월 同要領이 外國換管理規程에 흡수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延支給輸入管理내용은 대

상품목에 대한 규제와 延支給기간에 대한 규제가 主軸을 이루고 있다.

현행 外國換規程 第9-11條에 의하면 延支給輸入對象品目은 實行關稅率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품목과 從量稅非適用品目 및 輸出用原資材에 한하고 있으며, 延支給기간은 120일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美國商品信用公社가 공여하는 신용에 의한 延支給輸入은 그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75년 延支給輸入制度運用 이후 延支給기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延支給輸入期間 變動內訳〉
(單位: 日)

75. 2	77. 9	77.11	77.12	79. 8	79.12	83. 5	83.12
180	150	120	90	120	180	150	120

83年 이후 정부는 외채부담 완화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借入하는 短期外資導入억제 및 민간베이스의 유전스·D/A輸入등 短期貿易信用도입감축을 적극 추진, 83年 5月과 12月 두차례에 걸쳐 유전스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60일을 단축한 바 있으며, 유전스기간내에서의 연장 및 分割決済등의 禁止措置를 취한 바 있다. 유전스기간의 단축은 총수입중 유전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뿐 아니라, 국제수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취해진 조치라 생각된다.

〈年度別 延支給 輸入実績〉

(單位: 億달러)

	79	80	81	82	83
○總 輸 入(A)	169	192	215	243	262
○延支給輸入(B)	69	101	101	100	110
—原油延支給輸入(C)	32	54	62	59	56
○比 率(%)					
—B/A	41	53	47	41	42
—C/B	46	53	61	59	51

2. 現行 유전스政策이 精油社에 미치는 영향

유전스는 정유산업의 젖줄이라 할 수 있다. 정유산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원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원료의 구입·生産販賣에 소요되는 막대한 運營資金全額을 유전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스기간은 정유사의 자금회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전스사용기간이 적정치 못할 경우 資金負擔, 재고감소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 一部精油社の 決濟資金 부족

지난 해 두차례에 걸친 유전스사용기간의 단축결과 일부 정유사는 決濟資金부족등 이미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며, 資金難 해결을 위하여 有價増資를 통한 대출한도의 증대, 社債價 발행등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을 것인 바 급변 하반기부터는 500億원 정도의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전스사용기간의 단축 이후 84년(1-5月) 정유사의 유전스평균잔액은 국내 석유수요의 증가등으로 83년 실적보다 3億弗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精油社別 유전스 平均殘額 現行〉

(單位: B/L기준, 百萬달러)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83年	741	760	162	258	89	2,010
84年(1-5月)	817	904	256	342	74	2,393

2) 精油社 保有在庫수준 하락

유전스사용기간의 短縮은 精油社の 決濟資金부족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国内金融市場에서의 자금조달한계로 精油社는 결국 原油 및 제품의 재고 보유수준을 最低로 유지함으로써 추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할 것이다.

현행 유전스期日 120일은 国内精油社가 최소한의 재고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国内石油製品의 안정적 공급에 다소 불안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現今의 國際石油市況이 지극히 불안한 상태임을 감안, 對中東依存度 감축을 위한 原油導入先多邊化 촉진 및 비축물량 제고를 위한 민간비축의무부과등 国内石油製品의 수급안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精油業界는 더욱 어려

은 입장에 놓여 있다.

아래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년 유전스사용기간 단축조치 이후 精油社別 재고수준은 持續 11수가 3일 감소되었으며 재고물량 자체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전스사용기간의 단축에 따른 追加資金負擔을 재고감소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精油社別 平均在庫 現況〉

(지속일수 : 日)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83年	40 (8,930)	31 (6,210)	29 (1,332)	45 (2,682)	46 (643)	36 (19,797)
84年(1-5月)	37 (8,301)	28 (6,218)	27 (1,181)	28 (2,632)	38 (538)	33 (18,870)
증 감	△ 3	△ 3	△ 2	△ 7	△ 8	△ 3

註 : () 내는 原油 및 製品在庫量(千배럴)

3) 유전스期間內 연장 및 分割決濟등 금지에 따른 資金運營의 硬直性

현행 유전스政策은 사용기간 120일로의 제한과 사용기간내에서의 연장 및 分割決濟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精油社의 자금운영을 硬直시킬 뿐 아니라, 短期外債감축에도 逆機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번 결정된 유전스기간의 연장이 不許되는 상황에서 精油社는 4-5개월후의 자금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現與件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보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精油社는 法定最大 사용기간인 120일을 무조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營業與件上, 판매대금의 一時收金등에 의한 餘有資金保有時에도 분할결제등이 不可하여 기업의 貨幣性 자산보유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국제금리변동등 借入與件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일시상환을 위해 多額의 貨幣性資産을 보유하게 되고 국제금리 하락시에도 종전의 高率의 유전스금융을 계속 사용하므로써 불필요한 이자가 지불되어야 하며, 換率上昇時에는 換差損까지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전스사용기간내에서의 연장 및 分割決濟등의 금지조치는 短期外債감축에도 逆機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精油社에 이자등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Ⅲ. 현행 유전스政策에 대한 精油社의 입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유전스사용기간의 단축조치 이후 일부 精油社는 금년 하반기부터 약 500億원의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苦心할 것으로 예상되며 民間備蓄義務賦課에 따른 추가부담으로 資金難은 倍加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유전스정책에 대한 精油社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1. 原油에 대한 유전스輸入期間을 최소한 현행 120일 유지

현행 120일의 유전스使用時에도 일부 精油社는 운영자금부족이 예상되며, 原油의 민간비축의무부과에 따른 추가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상반기중 안정적이던 換率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금리마저 2% 이상 인상되었는 바, 이에 따른 비용부담 또한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전스사용기간이 현행보다 短縮될 경우 精油業界는 자금부족으로 심각한 經營難에 봉착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代拂事態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또한 결제자금의 부족은 재고수준의 감축, 原油의 선적시기 조정등 国内石油類 안정공급 沮害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스 사용기간은 최소한 현행 120일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전스期限內 연장 및 早期決濟등 허용

현행 유전스규정은 사용기간내에서의 연장 및 分割決濟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자금의 보수적 운용을 유도하여 유전스사용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沮害하여 이자 및 換差負擔을 추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금의 신속적 管理로 短期外債減縮 및 불필요한 추가비용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전스 기간내에서의 연장 및 分割決濟등을 허용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 精油業界는 자금상황 借入與件 변동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精油社의 損益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原油導入유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国内精油產業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